

開業藥局과 藥劑學

金 成 俊

서울特別市藥師會長

緒論

20年前即 1954年 우리나라 藥師 總數는 1,499名이며 이 중 43%인 647名이 藥局을 開設하였는데 大韓藥師會가 每年 施行하는 藥師 身上申告에 依하면 1974年 3月 現在 申告藥師 總數 13,556名(保社部 統計年報 1973年版 藥師免許 狀況에서는 1973年 現在 17,784名)中 65%인 8,872名이 藥局을 開設하고 있으며, 서울特別市의 경우는 7,111名中 4,293名이 開業藥師이고 보면 서울特別市 人口 1,500名에 藥局 1個所로서 世界 그 어느 곳보다도 藥局이 密集된都市인 것이다.

開業藥師의 業務는 實로 多樣하다. 藥師法 21條에 明示한바 藥師가 아니면 醫藥品을 調劑할 수 없다. 即 藥師의 基本權인 調劑가 主業務로 되어야 하지만 各自 立地的 또는 其他 與件에 따라 調劑를 為主로 하는 藥局과 其反對로 完製醫藥品을 主로 取扱 販賣하는 藥局으로兩分되고 있다.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이 國民 醫療費에 關한 研究發表에 依하면 1973年 8月 現在 國民의 發病率은 人口 1,000名에 對해 113名이고 이 중 醫療要求度는 78%이며 1~3次式이나 藥局을 利用하고 있다고 할 때 開業藥師의 委任이 重且大함을 痛切하는 바이다.

調劑

1890年代에 發刊한 調劑術講本(著者 丹波敬三)序頭에 調劑術은 藥學의 應用術로서 醫師의 處方等에 依해 適正한 藥劑를 調製해서 이를 患者에게 投與하는 技術을 말하며 이를 實行하고 責任자는 著를 藥劑師(Pharmazent)라 했으며 藥學의 大家 Dr. H. Hager (1816~1897)은 調劑의 義務는 藥學終局의 目的이며 餘他 關聯學門科는 調劑를 하기 위한 協助하는 尊問이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좌우간 調劑가 術이든 學이든 間에 調劑權은 藥師만의 權利이며 오늘의 開業藥師는 調劑뿐만이 아니라 醫師 및 患者的 drug consultant로서 그야말

로 藥의 最高專門人으로써 充足한 教育을 履修하였는가? 또 開業藥師는 日進月步하는 새로 운 專門知識을 터득하기에 얼마나 努力하고 있는가? 이러한 問題를 再論하는 것도 無益한 일은 아닐 것이다.

「藥의 最高專門人이 되기 위해」

陳舊한 이야기지만 1948年 京城藥專 卒業班의 curriculum은 不過 10科目이었는데 即 鑑定化學, 調劑學, 藥局方, 有機藥品工業學, 植物化學, 生理學, 호르몬化學, 理論化學, 英語, 獨語 等이었다.

이當時 調劑學이라 함은 정밀 技術的 領域을 免치 못했으니 秤量·乳鉢의 使用法, 藥色紙로 散劑藥을 싸는 法, 乳劑를 만드는 法, 實은 冊으로 배우는 것이고 實習 한번 못해보고 校門을 나왔으니 當時 생각만 해도 창피한 일이다. 調劑術이 調劑學으로 또 언제부터 藥劑學으로 發展했는지? 現今의 藥劑學教育은 開業을 指向하든 病院藥局이나 製藥會社를 願하든 藥의 最高專門人으로 育成하는 데 異常은 없는지? 開業藥師의 役割이야 말로 1人 2役이 아니라 1人 10役의 實力을 갖추어야 함을 切感한다. 醫藥分業化가 實施안된 우리 實情에서前述한 바 醫療要求者中 많은 數가 藥局을 訪問해서 自身의 疾病과 健康을 위해서 相談할 경우 가장 適切한 醫藥品을 投與코자 할 때 어디다 基準을 두고 決定할 것인가? 우리는 200餘種의 藥局製劑를 비롯해서 國內外公正書, 數많은 藥學 및 醫學에 關한 成書를 參照해서 많은 種類의 製劑를 調劑할 權利를 가지고 있는데 開業藥師에 立場에서 力不足은 없는가? 軟膏劑를 調劑코자 할 때 軟膏의 基劑는? 界面活性劑는? 主藥의 含量은 몇%가 가장 適當한가? 吸收와 安定性等等 수많은 問題가 있음을 考慮할 때 自身을 잊어버릴 때가 그 몇번인가? 散劑의 경우 粉末의 粒子의 크기와 吸收率의 關係 特히 trichophytia 治療劑인 griseofulvin 경우 粒子의 直徑을 10μ 에서 2.7μ 로 micro powder로 製造할 때 吸收率은 2倍로 된다는 事實은 너무나 有名한 이야기고 보면 調劑時 乳鉢을 使用함이 單純히 混合에만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藥에 있어서는 微細粉末을 만들 때 그 有効性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hloramphenicol palmitate 경우 結晶形中 β 型만이 有効하다든가 erythromycin은 위액에서 分解되므로 腸溶皮錠等의 劑形을 갖추어야 한다든가 많은 問題點을 解決해 주는 오늘의 藥劑學이야 말로 未知의 藥學分野를 開拓하는 龍見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結論

開業藥師를 希望하는 藥學徒가 있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強勸할 것이니 即 藥劑學(生物藥劑學, 臨床藥劑學, 物理藥劑學)을 充分히 master하라! 그리고 開業藥師가 되거든 한손에 恒時 藥劑學冊을 꽉 불들어라! 그는 멀지 않아 開業藥師로서 名聲을 드높일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 바이다.